■ 올 하반기 개봉 기다리는 화제작

올해 한국 영화계는 크게 위축된 상태다. '화려한 휴가'와 '디워'가 대박을 터트리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영화가 관객 동원에 실패했다. 기대를 걸었던 추석 시즌 영화들도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침체기를 벗어나게 할 화제작은 없을까. 2007년 하반기,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화를 소개한다.

한국영화 '부활'의 노래

'M' '바르게 살자' '스카우트' 등 줄줄이 대기
화려한 캐스팅 주목 … 공포·미스테리물도

▲감독의 이름 값

하반기 개봉작 중 가장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영화는 이명세 감독의 'M'이다. '형사-듀얼리스트'를 통해 찬반 양론을 일으켰던 이 감독이 선보이는 'M'은 '메모리(Memory)' '미스트(Mist)' '멜로(Melo)'의 첫글자를 의미하는 미스터리 관타지물이다.

'형사'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강동원이 꿈과 현실을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는 30대의 소설가 역할을 맡았으며 공효진·이효진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YMCA 야구단' '광식이 동생 광태'의 김현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스카우트'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야구 천재' '괴물 투수'로 불렸던 18세의 선동열을 스카우트 하기 위해 대학 야구단들이 벌인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임창정이 '10일만에 선동열을 잡아오라'는 명을 받은 스카우터 호창으로 출연하며 백일섭, 박철민 등 '전라도 사투리'에 일가견이 있는 배우들이 출연한다.

정재영이 주연을 맡은 '바르게 살자'는 각본을 맡은 장진 감독이 눈에 띄는 작품이다. '킬러들의 수다' '웰컴 투 동막골', '박수 칠 때 떠나라' 등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코미디 작품을 만들어온 장진의 장점이 어떻게 발휘될지 관심이 가는 영화다.

은행강도 모의 훈련 중에 어리버리한 순경이 진짜 강도로 오해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색다른 소재가 역시 '장진스럽다'.

▲캐스팅이 눈에 띄네

영화가 완성되기도 전에 일본에 판매돼 화제가 되고 있는 '숙명'은 남자 스타들의 경연장이다.

군 제대 후 신고식을 치르는 송승헌과 지성을 비롯해 한류스타 권상우까지 가세한 '숙명'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네 남자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남자 영화'다.

차승원과 한석규가 만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역시 배우들의 면면으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신예 안권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사건 해결 백전백승의 형사와 두뇌 회전이 빠른 범인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윤계상과 김하늘이 주연을 맡은 '6년째 연애중'는 로맨틱 코미디 작품 중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

사소한 물건 때문에 벌어지는 이혼 전쟁을 그린 '싸움'은 얼핏 부조화스러운 커플로 보이는 설경구와 김태희의 조합을 드라마 '연애시대'에서 손예진과 감우성의 세심한 연기를 잡아낸 한지승 감독이 어떻게 조율했을까에 관심이 가는 영화다.

▲공포·미스테리물도 개봉준비

여성 감독인 김미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궁녀'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궁궐 속 궁녀들의 삶을 다룬 미스테리물이다.

어느 날 궁궐에서 자살한 시체가 발견되고 내의녀 천령은 시체에서 출산의 흔적을 발견하고 타살의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감찰상궁은 자살로 은폐하라고 명한다. 박진희·서영희 등이 출연한다.

오만석·이선균·류덕환이 주연을 맡은 '우리동네'는 살인범과 살인모방범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남극일기'의 임필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공포영화 '헨젤과 그레텔'은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한 공포영화로 교통사고를 당해 길을 잃은 한 남자 앞에 세남매가 함께 살고 있는 '과자집'이 나타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목! 이 영화

연기파 배우 황정민·임수정 주연 멜로

'행복'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외출' 등 멜로영화를 만들어 온 허진호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다. 여기다 연기파 배우로 꼽히는 황정민과 임수정이 주연을 맡아 더 눈길을 끈다.

서울에서 클럽을 운영하며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겨온 영수는 가게는 망하고 애인의 떠나고 심각한 병까지 앓게 되면서 시골 요양원 '희망의 집'으로 내려간다.

8년째 요양원 '희망의 집'에서 살며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은희는 숨이 차면 죽을 수도 있는 중증 폐질환 환자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영수에게도 먼저 손을 내민다.

결국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두 사람은 보통의 커플처럼 연애를 시작하고 요양원을 나와 함께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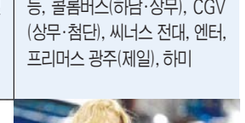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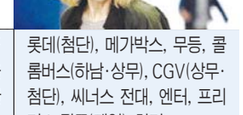
하지만 1년 뒤 은희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한 영수는 은희와의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고 옛 여자친구 수연이 찾아오자 마음이 흔들린다.

공효진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오랫동안 허진호 감독과 작업해온 조성우가 음악을 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행복	
황정민, 임수정, 공효진 주연의 멜로물. 바람둥이 남자와 불치병에 걸린 여자의 사랑이야기.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내니 다이어리	
스칼렛 요한슨이 뉴욕 상류층의 보모로 등장해 벌이는 좌충우돌 스토리.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러시아워3	
성룡과 크리스 터커의 액션물. 파리를 배경으로 삼합회의 음모에 맞서 싸운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사랑	
'친구'의 곽경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 이야기.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상사부일체	
'두사부일체' 3번째 시리즈로 무대를 학교에서 직장으로 옮겼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인베이젼	
니콜 키드만이 주연을 맡은 SF물. 이물질에 의한 '신체강탈'을 주제로 하고 있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권순분여사 납치사건	
500억원의 몸값을 받아주겠다는 국밥집 사장과 어리버리 납치 3인조가 벌이는 코미디.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즐거운 인생	
'왕의 남자'의 이준익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40대 중년들의 꿈을 그리고 있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본 얼티메 이텀	
'본 아이덴티티' '본 슈프리머시'에 이은 3번째 시리즈로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상무), 하미